

최진영's China/Commodity Trends

美中 외교 · 안보 대화, 실리를 선택한 중국



China / Commodity

최진영

02 3779 8689

jychoi@ebestsec.co.kr

냉혹한 新현실주의, 그러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무역갈등

11월 9일, 제 2차 美中 외교·안보 대화가 열렸다. 그 동안 美中 양국은 무역을 넘어 군사 분야에서조차 충돌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그러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 보다는 실리를 얻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갈등의 봉합을 희망했다.

중국 국방장관의 성명 발표(중국 측 성명 내용: 뒷면 참조)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다. ①하나의 중국(대만 독립 반대) ②남중국해 영해 주권 ③내정간섭 반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무역갈등 문제 해결이 그것이다. 반면, 중국이 포기한 것은 패권 추구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對北제재 안보리 결의 이행이다. 지난 9월말 중국과 러시아는 UN에서 南北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對北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2개월 만에 중국의 태도가 급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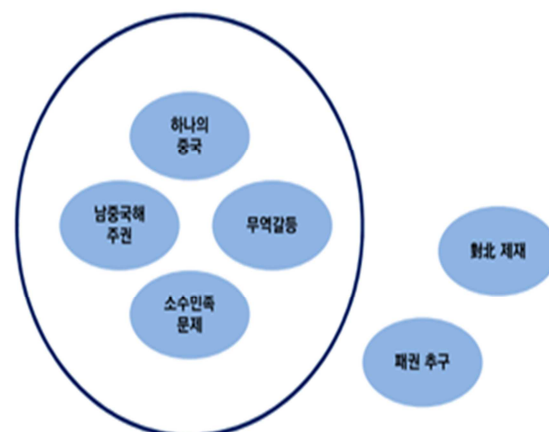
美中 무역갈등으로 내년도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출된 이번 회담 결과는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잡음으로 시장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결과를 근거로 G20 정상회담에서의 美中 양국 정상간 만남은 그 동안 고대했던 불확실성의 마침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광양획로 회귀하는 중국



자료: 중국 외교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다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 2차 美中 2+2 외교안보 대화 관련 중국 측 성명문(2018년 11월 9일)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

지난 11월 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트럼프 美 대통령과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지도자는 양국간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의 기초 하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달 말 있을 G20 정상회의를 위해 양국 실무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외교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1월 1일 양국 지도자간 통화 내용에 따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번 회의에서 큰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전략 의도에 대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과 개혁개방을 지속할 것이며, 평화로 나아가는 방향을 유지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들은 중국 국민들의 복지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것이며, 결코 누군가에 대해 도전을 한다던가 누군가를 대체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립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 평화의 건설자였으며, 세계 발전의 공헌자이자 국제질서의 수호자였습니다. 중국이 취하는 국방정책은 어디까지나 자국을 수호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중국의 군사력은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데 있습니다.

중국의 군대는 시종일관 역내와 세계 평화, 나아가 세계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존중하며, 미국 측 역시 함께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존중할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미국 측에 충돌과 대항을 지양했으며, 상호 존중, 공동번영을 추구했습니다.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크게 공헌했습니다. 미국 측은 미국의 전략 의도와 對中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경제의 발전을 지지했으며, 중국의 성공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제재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과 상호존중, 대등, 부의 성과를 기반으로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했습니다. 양측은 美中 관계를 보호한다는 것이 양국 국민과 나아가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임을 인지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지도자간 확정된 방향과 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이라는 기반 하, 분쟁을 통제할 것이며, 상호 이익을 기반 하에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은 함께 협력과 협조의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웨이펑허(魏凤和) 중국 국방장관:

중국은 시종일관 美中 양국 군대간 관계 발전에 성심을 다하였습니다. 중국군대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발전이익을 수호하는데 있습니다. 양측은 상호간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소통과 교류 강화, 신뢰 증진으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양국 군대간 관계는 양국간 관계의 안정을 위하는 것에 있습니다. 美中 양국은 양국간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화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소통 증진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양측은 <위기 예방 소통 프레임>을 확립하여 소통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주요 군사행동 시 상호한 통보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과 상공에서의 안전 행위 준칙을 통해 상호한 신뢰를 쌓아 갈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기존 원칙을 알렸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한 것이며, 이는 美中 양국에 민감한 핵심 문제입니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과 분열주의 활동은 대만해협과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결연히 반대하며,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속적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美中 양국 관계의 정치 기반입니다. 미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美中 3대 커뮤니케를 준수하길 희망하며, 대만 문제에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난사군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토 주권과 해양 주권을 수호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당사국간 대화와 협상, 평화적 해결을 지속할 것이며,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을 유지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필요한 방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 상 주권국가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군사화와 무관합니다. 중국은 미국 측이 이를 존중해주길 희망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를 중단해주길 촉구합니다. 남중국해의 평화 수호는 안보 위협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대화에서 **중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과 관련된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며, 타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신장 지역 경제와 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발전, 협력과 민생 안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족분열과 테러 활동을 관련 법에 따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장 지역 사회는 크게 안정됐으며, 경제발전 역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화합을 통해 협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이 이러한 문제에 존중해주길 희망하며, 유관 문제에 있어 내정간섭을 중단해주길 희망합니다.

중국은 경제와 무역 문제에 있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美中 양국 모두 지난 1일 양국 지도자간 대화가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 협상단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해 양국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지지합니다.**

양국 모두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 인지했으며, 경제/무역, 군사, 反테러, 反마약,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간 대화를 지지하며, 양측이 지속적인 상호신뢰를 쌓아가길 희망합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추진하는 것에 지지합니다.

미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이 건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美中 양측은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美中 양측은 미국과 북한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편, 對北제재 안보리 결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美中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프간, 중동 등 지역 문제에 있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유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진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